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18.(수)

# 한국수자원공사, 민·관·학·연 50여 개 기관과 '수상태양광 활성화 발전협의체' 출범

- 18일 발전협의체 발족식 개최, 정책제언·기술시공·기자재 3개 분과 운영
- 거버넌스를 통한 규제 개선·기자재 국산화 등 공동 대응,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 가속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양승조)는 11월 1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민·관·학·연 50여 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상태양광 활성화 발전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수상태양광 산업의 주요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별도의 육상 부지 훼손 없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재생에너지원이다. 특히 기존 수력발전 송전 계통과 연계하는 교차송전 방식을 통해 신규 송전망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허가 규제 개선, 기자재 국산화, 단가 절감 등 산업 전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소통과 민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산업계가 요청해 온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협의체는 ▲ 정책제언 ▲ 기술시공 ▲ 기자재 등 3개 전문 분과로 구성돼

상시 운영된다. 위원장 주재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총괄위원 주재 수시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제언 분과는 인허가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기술시공 분과는 사업비 절감, 설계·시공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기자재 분과는 고효율 모듈과 새로운 계류방식의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주력한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분과장을 임명했다. 이어 첫 번째 안건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함께 '수상구조물 성능·평가 기준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합천댐에 5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 현재 7개소에서 총 105.6MW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비전선포식을 열고 소양강댐 95MW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개소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기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적·기술적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내 수상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은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상시 소통 창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정부·공공·산업계·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개선과 기술 혁신을 이루고 국내 수상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 담당 부서 | 에너지사업처<br>태양광사업1부 | 책임자 | 부 장 | 임승현 (042-629-3351) |
|---|---|---|---|---|
| | | 담당자 | 차 장 | 최재백 (042-629-335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1월 1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앞줄 가운데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상태양광 활성화 발전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